

파코 라반 (Paco Rabanne) 작품에 표현된 다원주의

이 봉 덕 · 양 숙 희*

광주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Pluralism in Paco Rabanne's Works

Bong-Duk Lee and Sook-Hi Yang*

Dept. of Fashion Design, Kwangju Women's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In the midst of rapid cultural and artistic changes with the turn of the century, postmodernism is exerting great influence on the value and trends of arts. Many artists are making utmost efforts in order to overcome ambiguity and confusion caused by these changes. Analysis of the works and philosophy of prominent fashion designers provides insight into the influence of postmodernism to the creation of modern arts including fashion.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how pluralism,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postmodernism, has given impact to the modern fashion design. Fashion trend and works of Paco Rabanne were reviewed with particular emphasis on pluralistic expressions in his fashion creation. It was found that Paco Rabanne's diversified and innovative use of materials and design methods were possible due to the influence of pluralism. It is anticipated that this trend will be observed in the various forms of arts with the further analysis of fashion designers and artists.

Key words : postmodernism, pluralism, diversification, intertextuality, deconstruction.

I. 서 론

세기말과 새로운 세기의 변동을 거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예술 가치와 그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무질서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혼돈과 모호함을 극복하고 핵심 사상을 파악하려는 사람들의 치열한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패션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패션디자이너의 작품 형성과 변화 과정 및 그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현대의 지배적인 사상인 포스트모더니즘이 패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요한 특징인 다원주의(pluralism)가 현대패션에 어떠한 영향을 끼

치고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 소재 사용이나 의복 구성 등에 자유분방함과 초월함을 동시에 보이는 현대 대표 디자이너인 파코 라반(Paco Rabanne)을 선정하여 그의 패션 경향과 그의 작품에 표현된 다원주의 특성을 분석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패션과 그 패션을 만들어 가는 디자이너의 특징을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다양화와 다양한 변이가 공존하며 인식의 공유나 새로운 의미 창조가 항상 절충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패션은 이러한 가치의 변화와 절충의 영향을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대상이다. 왜냐하면 패션은 미학의 내재성과 변화라는 이중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불확정성과 더불어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의 가장 큰 특성 중의 하나가 다원주의이다. 다원주의의 특징은

개방, 해체, 반항, 변용, 다원성 및 절충주의적 경향이다. 이런 가치의 변화를 의식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다원주의적 특성을 가진 작품 세계를 이끌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 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과 실증 연구 등을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다원주의적 특성에 근거해 20세기를 대표하는 패션디자이너 중의 한 명인 파코 라반의 패션관과 작품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다원주의의 이론을 이용한 현대 디자이너 작품 해석의 근거를 제공하고 다원주의가 현대 패션을 주도하는 중요한 문화적 원천임을 밝히는 것도 이 논문의 목적 중의 하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포스트모더니즘의 미적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고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중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다원주의의 성격과 제반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파코 라반 패션의 외향과 미적 변화가 어떠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다음에 파코 라반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다원주의의 사고 틀로 비교 분석하고, 파코 라반의 패션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다원주의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그의 작품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 논문 및 국내·외 관련 문헌 등을 통해 이론적 연구를 수행했으며 파코 라반의 작품집과 패션 관련 잡지 및 인터넷 자료 등을 근거로 파코 라반의 작품을 분석했다.

II. 이론적 배경

1. 포스트모더니즘 (Postmodernism)

포스트모더니즘 안에서는 가치의 다양화가 허용되고 다양한 변이가 공존한다 (Lowe & Lowe, 1985).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주어졌을 때 공동의 정의나 공유할 수 있는 관점을 찾기 위해 애쓴다 (Bloomer, 1969). 그러나 포스

트모더니즘에서는 인식의 공유나 새로운 의미 창조가 반드시 구성원간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미는 항상 절충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Bogdan & Biklen, 1992)¹⁾.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적 지배소는 다음과 같다 (김옥동, 1990). 첫째 상호 텍스트성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순되고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체계와 변화, 전통과 혁신의 개념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모든 텍스트는 어디까지나 다른 텍스트들을 흡수하고 변형시킨 것에 지나지 않아 결국 새로운 것은 존재치 않는다. 둘째, 탈 장르화로 포스트모더니즘 하에서는 각 장르가 서로 혼합 및 결합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셋째 특징은 자기 반영성으로 모더니즘과 유사하게 포스트모더니즘은 리얼리즘과 재현성에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며 실제 세계보다는 창조된 세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리얼리즘이 외부 현실 반영에 관심 있는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자기반영성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²⁾. 마지막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간 격을 좁히는 작업에 관심이 있다³⁾. 모더니즘의 엘리트주의와 고답주의에 반응하여 대중문화의 존재 여부를 찾는 작업에 몰두한다. 이것은 기존의 가치가 붕괴되며 상실되고 억압 받은 주변적인 것들이 세력을 획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Connor (1995)는 대중 문화에 대한 포스트 모던 이론 중에서 가장 그 특징이 두드러지고 대표적인 분야가 패션이라고 파악한다. 문화적 활동으로서의 패션을 연구하면 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경험되는 사회적 문화생활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 패션은 영원성의 미학 속에서 변화와 새로움을 중심적 가치로 삼는 일시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문화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Calinescu, 1987)⁵⁾.

2. 다원주의 (Pluralism)

1) Bogdan, R. C. & Biklen, S. K.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1992, pp. 42.

2) Lyotard, J. F.,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김옥동 (편),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3) Jameson, F.,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Verso.

4) Steven Connor, *Postmodernist Culture: An Introduction to theories of the Contemporary*, 1995, pp. 213.

5) Calinescu, M., *Five Faces of Modernity*, Duke University Press, 1987.

포스트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개괄적인 사상 틀이 다원주의다. 다원주의는 모든 양식과 주제에 대하여 열려진 태도로서 모더니즘의 붕괴를 의미한다. 다원화 현상은 예술 작품의 균형이나 질서, 또는 양식이나 장르간의 구분이 허물어지는 해체주의적 경향으로 볼 수 있다⁶⁾. 핫산(Hassan, I., 1987)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불확정성(indeterminacy)이다. 즉, 특정한 유과가 아니라 개방, 해체, 반항, 변용, 다원성 등 이단의 정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질층주의 혼합적 경향을 보인다. 둘째는 단편화 현상(fragmentation)으로 모든 분야에서 은유가 중요시되는 정신 분열적인 시대를 나타낸다. 셋째는 탈경전화(decanonization)다. 권위가 붕괴되고 순수예술과 상업예술의 인위적 형식구분이 배제된다. 넷째는 재현 불가능성(unrepresentability)으로 장르의식이 붕괴되고 혼합되며 역사적 전통형식에 대한 복고 현상과 함께 인용, 재사용, 은유, 혼합, 모조 등이 발생하게 된다. 다섯째는 대중주의(populism)로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고 다원적인 인간정신을 지닌 대중매체 예술이 발달하게 된다. 여섯째는 행위와 참여다. 예술행위는 대중의 참여를 통해 완성되며 상업성을 바탕으로 작품활동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는 보편 내재성으로 예술과 일상생활의 차이가 사라지면서 건축이나 디자인 등에서 예술적 언어를 찾게 된다.

철학자인 Bailey(1999)는 다원주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첫째, 상호 텍스트성, 둘째 절대 진리와 의미의 해체, 셋째 개인 행동과 의지의 부존재, 넷째 역사적 발전이라는 개념의 비성립, 다섯째 과학의 비진리성, 여섯째 객관적 가치의 비존재, 일곱째 이성우위 사상의 오류성 등이다.

Bailey는 다원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각 주제 또는 개인의 개성과 자율 그리고 자유의 분해와 융합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고 역사 문화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다원주의는 반인본주의적이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은 자유를 가지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나 다원주의자들은

인간은 역사와 문화의 지배를 받는다고 믿는다. 다원주의자들은 역사의 일관된 특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역사적 발전이라는 것도 없다고 믿는다. 시대 구분에 따른 문명의 발달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며 문명은 서로 다를 뿐이라고 생각한다.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진리나 원칙은 없다고 믿는다.

한편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가인 들뢰즈(1999)에 따르면 자연의 산물들은 그들의 본질적인 속성인 다양성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자연은 다양성과 생산의 원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양성의 생산이라는 원리는 각각의 고유한 요소들을 하나의 전체 속에 통합하지 않아야 성립한다. 때로 비슷하고 때로는 다른 원자들의 합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은 일종의 합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전체는 아니다. 자연은 분명 잠재력이다. 그러나 이 잠재력은 사물들을 동시에 하나의 일관된 전체 안에 넣을 수 없으며 그를 총체할 하나의 조합 속에서 통합될 수도 없는 다양성 속에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III. 파코 라반 작품 특성

다음은 파코 라반이 그의 작품을 통해 보여 주었던 때로는 충격적이고 혁신적이었지만 일관성 있는 작품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작품의 특성은 다음 장에서 다원주의적 특성과 대비하여 분석하였다.

1. 의복의 고정 관념 해체

파코 라반은 “꾸뛰르의 줄 베른(프랑스의 소설가-미래의 세계와 상상의 발명품을 소재로 삼았음)”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⁷⁾. 데뷔 초기 그는 상당 기간 동안 두드러진 디자이너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파코 라반은 30년 이상 패션 세계에서 활동했고 지금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명성을 누리고 있다. 이 단자, 새로운 현상의 창조자라는 별명이 나타내는 것처럼 그는 전통에 상관하지 않고 새로운 소재 사용, 기존 소재의 혁신적 사용, 비전통적인 의복 구성,

6) Derrida, Jacques, "Dissemination" Trans. Barbara Johnson. London: Athlone Press, 1981.

7) Kamitsis, L., Paco Rabanne, Thames & Hudson, 1999, p.5.

인체 표현 방법의 다양성 추구, 타 영역과의 상호 연관성을 통해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한 디자이너로 이미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때 코코 샤넬은 파코 라반을 디자이너로 간주하지 않았고 그를 ‘금속공’이라고 불렀다⁸⁾. 파코 라반의 작품은 원래의 사용 목적에서 변형된 재료와 기술의 응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우리가 창조한 것은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패션은 어떠한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선언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계속 변화하며 미친 듯이 어리석은 것들을 만들어 내기를 원하고 있다.” (Le Fait Public, 1969 3월호) 이것이 창조에 대한 그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그는 새로운 소재의 사용 특히 또 기존 재료의 혁신적 사용이라는 실험을 단행했다. 초기의 귀걸이로부터 슬라이드 홀더나 광섬유 등을 사용한 마스크가 달린 최근의 옷과 또한 알루미늄과 종이로 만든 유명한 드레스에 이르기까지 파코 라반은 패션의 재반 현상을 심층 분석하고 의상에 대한 일반적 관념을 뒤엎는 혁명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했다.

2. 혁신적 의복 소재 사용

파코 라반은 그의 모든 디자인의 기본이 되는 기술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볼레로 등을 제작하는 등 몇 가지 실험을 시작했다. Dorothe 같은 아방가르드 상점은 그것들을 즉시 구매했고 보그를 위시한 패션 잡지들은 예전의 작고 검은 드레스를 대체할 새로운 종류의 소재 출현을 예고했다 (Vogue지 1965년 11월호). 새로운 패션창조를 위한 이러한 그의 선언은 새로운 권위를 갖고 패션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66년 소위 “새로운 재료를 사용한 입을 수 없는 의상” 12벌이 파리의 George V 호텔에서 Pierre Boulez의 의상과 함께 맨발의 모델에 의해 전시되었으며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이러한 의상에 대해 그 자리에 모인 언론인과 전문 바이어들은 양분된 반응

을 보였다. 이후의 쇼와 행사도 이와 비슷한 환영과 경악을 같이 자아냈다⁹⁾. 파코 라반에게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는 것은 기존소재 사용의 숨겨진 잠재성 개발이라는 측면 외에도 그의 천재성에 바탕을 둔 기존 질서에 대한 반발과 극복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파코 라반의 패션실험 중 색다른 소재의 디자인을 위해 신중하게 선택된 재료는 단단한 플라스틱인 Rhodoid이다. 가볍고 저렴하고 여러가지 색이 가능하며 여러가지 기하학적 모양으로 잘라서 구멍을 뚫고 금속 원형 틀과 합쳐서 다양한 드레스와 액세서리를 제작했다. <그림 1>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젊은 고객 층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히 제작되었고 획기적인 주목을 받은 Rhodoid 귀걸이다.

그의 소재는 점점 다양화 되었고 종이, 가죽, 부직포를 이용한 작품들과 플라스틱 원반을 체인으로 이은 드레스와 삼각형이나 장방형의 플라스틱 또는 가죽 조각을 링으로 이은 드레스도 발표했다. 그는 또한 마름모꼴의 금속과 알루미늄 직사각형 모형과 체인 형태도 사용했다.

파코 라반의 또 하나의 획기적 발명품은 액체 플라스틱인 ‘Giffo’다. 이 재료는 특별히 디자인된 몰드에 스프레이를 가함으로써 창조되었다 <그림 2>는 1968년에 개발된 혁명적인 방법을 사용한 ‘Giffo’의 몰드를 이용한 의상의 예이다.



<그림 1> Rhodoid earrings, 1965, (Paco Rabanne, 1999, p.18)

8) *ibid.*, p.15.

9) *ibid.*, p.7.



<그림 2> Giffo mould-made Garment, 1968, (Paco Rabanne, 1999, p.56)



<그림 3> Mini Dress, 1968, (Paco Rabanne, 1999, p.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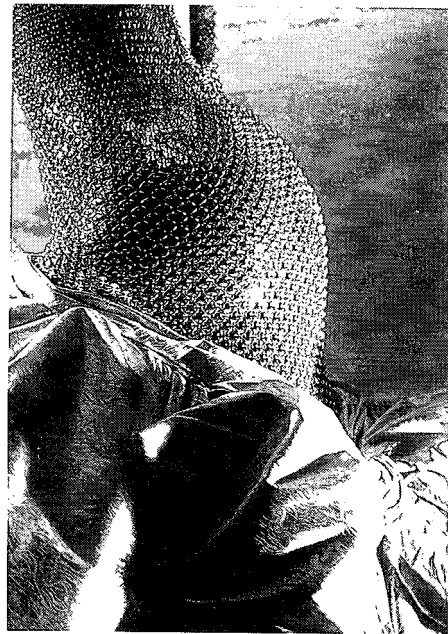
파코 라반은 알루미늄도 그의 창작 소재로 삼았으며 <그림 3>은 그의 디자인 중에서 가장 많이 활

영된 작품이고 그의 추종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작품인데 사각 알루미늄 조각으로 만든 미니 드레스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꽃과 단추를 달았다. 그리고 1979년 알루미늄 저지를 이용하여 롱코트를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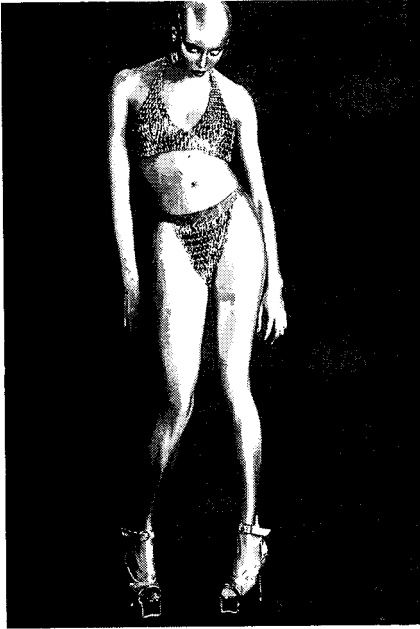
이외에도 금속 쇠사슬은 그가 즐겨 사용한 재료로 <그림 4>는 1978~1979년 A/W Collection 발표했던 작품이고, 1990년 파리에 있는 그의 부티크에 전시되었으며 1997년 Elle지에도 그의 대표작품으로 실렸다. '90년대에 들어서도 그는 금 체인, 광섬유, 플라스틱 튜브 등의 다양한 소재를 여러 가지로 조합하는 등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림 5>는 나오미 캠벨을 위해 만든 금속 보석 조각으로 만든 비키니다.

3. 기존 의복 소재의 사용 방법 혁신

파코 라반은 모피, 깃털, 레이스, 자수, 가죽, 종이 등의 기존의 의복 소재를 기존 전통 디자이너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모피의 경우 <그림 6>에서는 여우 꼬리가 아프리카 꽃으로 변화되어 독특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1966년 깃털



<그림 4> Bolero, 1978~1979 A/W, (Paco Rabanne, 1999, p.48)



<그림 5> Bikini, top:1989, thong:1991. shoes:1996, (Paco Rabanne, 1999, p.69)



<그림 7> Innovative Look, 1968~1969, (Dictionary of Fashion and Fashion designers, 1998, p.196)



<그림 6> Dress, 1966, (Paco Rabanne, 1999, p.58)

이 파리의 Iris Clert의 갤러리에 전시되었다. 이 갤러리의 주인은 비전통적인 취향으로 잘 알려져 있었는

데 이 옷들을 그의 실험정신이 강한 옷과 함께 전시했다. <그림 7>은 1968~1969 A/W에 발표한 남아프리카의 타조 깃털과 알루미늄 판넬로 구성된 혁신적인 작품이다.

레이스는 재평가될 또 하나의 재료였다. 파코라반의 초기 작품활동시기에 레이스는 보통 디자이너들에게는 흥미를 끌지 못하는 재료지만 파코 라반에게는 여성의 이미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재료였다. 대부분 디자이너 컬렉션에 레이스라고는 눈에 띄지 않을 때 레이스를 사용한 것은 아마도 그의 시대에 역행하는 반발심일 수도 있다. 그가 사용하는 공정은 그의 명성이 절정을 누리던 1969년에 완성했다. 레이스를 잘라서 두 장의 플라스틱 사이에서 압축해 링과 색이 있는 플라스틱으로 연결하고 금속조각으로 된 드레스에 리벳으로 연결해 때로는 레이스를 알아볼 수 없었다.

오프 꾸뛰르에서 고급 의상 제작에 자수 장식을 이용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다. 역설적으로 파코 라반이 폐쇄적인 꾸뛰르 세계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자수 장식을 사용하였는데 장식에 대한 그의 독

특한 취급법과 함께 그는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높은 비용까지도 문제삼았다. 이런 것이 그의 창작력을 자극하는 것들이었다. 바느질 대신 리벳을 사용했고 구슬과 금속조각을 스타드(stud)로 옷에 부착시키고 리본으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하면 장식을 미리 만들어 놓은 옷에 비교적 빨리 부착할 수 있다. 이 공정의 독창성과 낮은 비용 때문에 Maggy Rouff, Pipart, Nina Rich, Vent 등 여러 디자이너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며 그들은 이브닝 드레스를 주문 제작 요청을 받았다. 커다란 마름모형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장식한 코트는 1966년 7월자 영이판 보그지에 실렸으며 장식품에 대해 높은 찬사를 받았다¹⁰⁾.

1967년 사이먼 프레르 패션 하우스는 그에게 고급 가죽을 사용하여 디자인을 하도록 부탁했고 파코 라반은 마름모꼴 무늬를 이용하여 가죽과 금속의 독창적인 연속 작품을 만들었다. 고객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이 독창적인 작품을 사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림 8>은 모델 트위기가 리벳으



<그림 8> Motorcycling-style Outfit, 1967, (Paco Rabanne, 1999, p.31)

로 가죽을 연결한 모토사이클용 의상을 입고 있다.

패션을 더욱 많은 사람이 즐기게 하기 위해 파코 라반은 1967년에 그의 새로운 종이 드레스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더 성공을 거두었다. 종이는 쉽게 폐기되는 소재였지만 1967년 이래 파코 라반은 그 사용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해 왔다. 그 해에 파코 라반은 그의 첫번째 일회용 드레스를 만들었다. 부드럽고 가벼운 이 재료는 내화성을 추가했고 나일론과 같이 사용해 강하게 만들었다. 이 옷은 해외여행이 증가되는 시기에 세계 어느 곳아든지 가볍게 여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시의 적절한 작품이었다.

4. 비전통적 의복구성 방법

파코 라반은 전통적인 재단 봉제 방법을 탈피하고 바늘과 실의 사용을 혐오했다. 그의 작품에서는 플라스틱이나 다른 단단한 재료를 금속 링이나 리벳으로 연결해 의상은 원래 이어진 옷감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환상을 깨뜨리게 된다.

금속 링으로 연결된 단단한 요소로 만든 그리드는 옷감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개념에 대한 역설임과 동시에 구멍을 낼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하여 옷감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다. 파코 라반의 트레이드마크는 이러한 독특한 방법으로 옷감을 만드는 것이 되었으며 오드리 헵번이 1966년 스텐리 도넨이 감독한 'Two for Road' 라는 영화에서 그가 제작한 옷을 입고 있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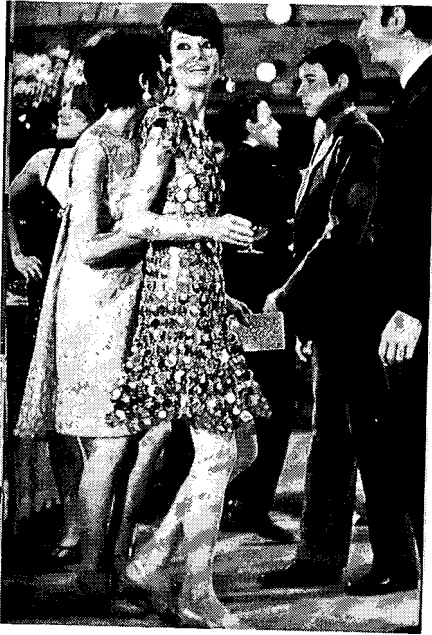
종이는 이미 특히 미국 등지에서는 주부의 작업복 같은 기능적인 옷에 쓰이고 있었으며 섬유를 대신할 수 있는 저렴한 소재로 생각되고 있었다. 그러나 파코 라반은 종이와 섬유의 대체품 취급을 받는 것을 거부했으며 옷감을 서로 꿰매는 대신에 여러 색의 집착테이프를 사용하였고 이것은 디자인의 장식요소가 되었다¹¹⁾.

5. 인체 표현 방법의 다양성 추구

인체를 표현하는데 독특한 방법을 추구한 파코 라반은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단단한 재료를 금속

10) *ibid.*, p.14.

11) *ibid.*, p.12.



<그림 9> Dress, 1966, (Paco Rabanne, 1999, p.27)

링이나 리벳으로 연결하여 여성 스타일의 현재의 개념에 의해 드러나는 제한된 부분이 아닌 몸 전체가 연결된 고리 사이의 틈을 통해서 보이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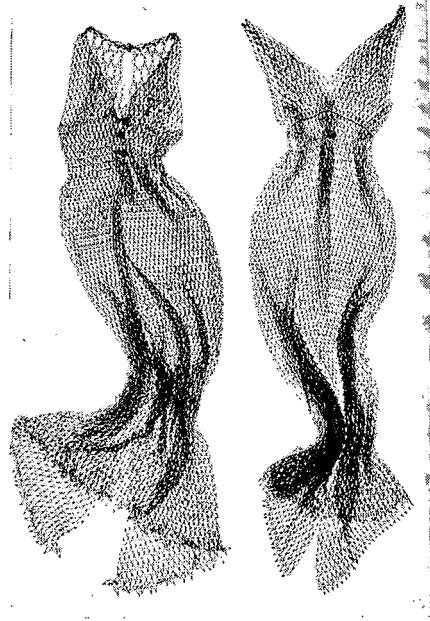
1968년에는 드레스와 망토 제작사 카드를 격자 모양으로 하거나 그 안에 마른 꽃을 고정한 투명한 플라스틱 사각형을 이용하여 타조 깃털을 붙여 부분적으로 감추어진 육체의 관능성을 강조하였다.

파코 라반은 옷으로 몸을 가리려 하지만 그의 디자인은 가림을 통해 오히려 눈을 자극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30년 동안 신체의 곡선에 들어맞는 새롭고 관능적인 형태의 다양한 드레스를 개발했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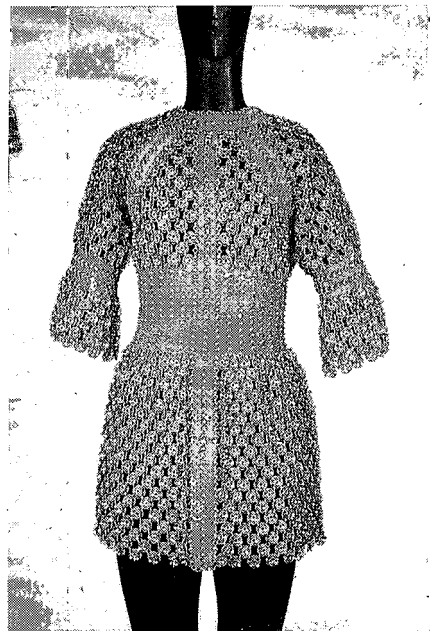
6. 타 영역과의 상호 연관성

파코 라반은 패션과 타 예술과의 상호 연관성 추구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1968년 금속망을 이용해 만든 미니드레스를 당시 인기 가수 프랑소와즈 아르디(Francoise Hardy)에게 입혀 대중에게 소개했다. 그 드레스는 다이아몬드로 장식되고 작은 편 사이로 5천 개의 금반자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천 개의 작은 금판으로 제작되었다(그림 11).

1968년 그는 핸드백에 화장실 물 내리는 줄을 달



<그림 10> Net-like Mermaid Dress, 1994, (Paco Rabanne, 1999, p.52)



<그림 11> Metal Dress, 1968, (패션 디자이너 199, 2권, p.16)

았다. 이것은 마셀 두상(Marcel Duchamp)의 작품 'ready



<그림 12> Handbag, 1968, (Paco Rabanne, 1999, p.44)

-mades'을 참고로 한 것이고 코코 샤넬의 유명한 제인으로 된 핸드백 줄을 조롱하는 것이기도 하다(그림 12). 또한 그는 광섬유 등의 다른 영역에도 응용의 가능성을 넓히고 있으며 1993~1994 A/W 발표한 플라스틱 튜브로 만든 분수 드레스에도 새로운 소재에 관한 그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초현실주의 화가이며 도발적인 표현의 대가인 살바도르 달리는 파코 라반의 작품에 매혹되어 있었는데 그는 파코 라반을 자신 다음으로 스페인의 둘째가는 천재라고 불렀다. <그림 13>에서 그는 현대적인 소재로 만든 파코 라반의 “입을 수가 없는 옷”을 입은 모델들에 둘러싸여 있다.

'60년대 만들어진 영화 속의 미래의 모습도 파코 라반의 스타일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1967년에 존 휴스턴이 만든 007 영화 'Casino Royale'를 위해 금속 조각을 이어 드레스와 헬멧을 디자인하였다(그림 14).

IV. 파코 라반 작품에 표현된 다원주의

문화적 활동으로서의 패션은 가장 보편적이고 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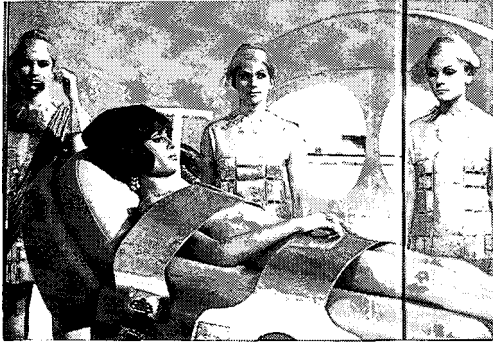


<그림 13> Salvador Dali, (Paco Rabanne, 1999, p.25)

리 경험되는 사회적 문화생활에 영향을 가장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¹²⁾. 새로운 유행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문화적 변화에 동승한 파코 라반이 자신의 영역과 표현을 어떻게 다양화 했으며 그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 기조인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이러한 다양성의 탄생과 변화는 일과적인 것이 아니고 진행성이며 향후 계속될 피코 라반의 문화적 실험과 함께 더욱 다양한 형태를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철학자인 Bailey (1999)는 다원주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상호 텍스트성, 둘째 절대 진리와 의미의 해체, 셋째 개인 행동과 의지의 부 존재, 넷째 역사적 발전이라는 개념의 비 성립, 다섯째 과학의 비 진리성, 여섯째 객관적 가치의 비 존재, 일곱째 이성우위 사상의 오류성 등이다. 이상은 모더니즘이 지향하는 미의 궁극적인 가치개념을 부정하여 수직적 질서보다는 수평적 다양성을 중시하는 다원주의의 미학적 경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은 이

12) Faurschou, G. (1987). Fashion and the cultural logic of postmodernity.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and Social Theory*. 11(1). 68-84.



<그림 14> Dresses and Helmets, 1967, (Paco Rabanne, 1999, p.36)

상의 다원주의의 특성과 연관지어 분석한 파코 라반 작품의 특성이다.

1. 상호 텍스트성

포스트모더니즘 안의 상호텍스트성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그 이면의 문화적 영향과 의미를 알아야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는 사상이다. 파코 라반은 오프 꾸뛰르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마네킹을 도입하고 최초로 패션쇼에 아프리카 음악을 넣는 등 패션을 대중화시키고 전통을 해체하면서 미를 창조하는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음악, 미술, 영화 등의 다른 예술 영역과의 교류를 통해 이제까지의 패션작품의 개념과는 다른 성격과 미학을 가진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이단적인 추진력의 근원에는 사회, 문화의 주어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일탈과 합치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 절대 진리와 의미의 해체

절대진리와 의미의 해체 원리에 따르면 한 연상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해석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다원주의에서는 절대진리는 존재치 않는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진리라는 것도 성립치 않는다고 생각한다. 파코 라반은 금속, 플라스틱, 종이는 의복의 소재가 될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도전하여 이러한 소재들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작품영역을 개척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많은 응용작품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파코 라반은 디자이너가 어떠한 양식과 소재를 취해야 한다는 고정관

념을 깨고 또 그러한 생각을 실제 작품으로 승화시킨 작가다. 파코 라반은 그의 디자인에 혁신적인 소재를 선택하고 형태를 끝없이 변화시키거나 작품 제작시 전통적인 구성 방법을 탈피하고 기존소재의 사용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나가면서 의복의 고정 관념 및 전통의 해체를 통해 미를 창조하였다.

그는 당시에는 패션의 소재라고는 생각되지 않던 혁신적인 소재인 Rhodoid 플라스틱을 패션에 사용하였는데 이 소재는 무한할 정도로 다양한 색과 모양을 이용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액체 플라스틱인 Giffo를 이용하여 특별히 디자인된 몰드에 스프레이 함으로써 의상을 제작했는데 즉, 5백개의 분리된 공정 대신 이제 두 절차만을 사용해 옷감의 산업생산을 크게 단축시켰다. 이것은 전통적인 제조나 구매 습관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었다. 의복 구성시 실과 바늘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회피하고 금속 링이나 리벳, 집착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의복을 제작하였다. 또한 그는 기존의 의복 소재인 털, 가죽, 종이, 레이스 등을 새로운 방법을 통해 전혀 색다른 분위기를 창조하였다. 이러한 획기적이고 다양한 소재의 선택 및 방법들은 기존 질서와 미에 대한 반발이라는 측면과 함께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던 의복의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그 해체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3. 역사적 발전 개념의 비 성립

다원주의에서는 역사의 발전이라는 진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역사는 일정한 패턴을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세월이 흐른다는 것이 반드시 역사의 발전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이 사상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파코 라반은 시대를 앞서 간 사람이라고 한다. 하지만 다원주의적 사고에서 말하자면 그는 시대를 앞서 간 것이 아니라 역사에 상관없이 작품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파코 라반은 그가 활동을 시작했던 1960년대부터 1990년대 현재 이르기까지 일관된 작품경향을 구축,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파코 라반은 역사의 발전이라는 개념을 초월하고 시대의 흐름을 뛰어 넘어 그 자신의 일관된 창작의 세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파코 라반은 전통적인 봉제방법을 탈피했다. 실과 바늘을 이용한 봉제

는 인류의 문명과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해온 사상이다. 그런데 파코 라반은 이러한 인류문명의 발전에 역행하는 기술 방법을 이용했으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4. 도덕과 미학을 포함한 제 분야의 객관성 부인

다원주의에서는 도덕과 미학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객관성을 부인한다.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다. 아름답고 추한 것이나 뛰어난 가치나 그렇지 않은 가치가 항상 공존한다. 파코 라반의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인체 표현방법의 추구는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그렇지 않음이라는 이분법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파코 라반은 인체를 표현할 때 정해진 몇 가지 방법이나 미학적 원칙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작품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의상은 의부에서 보이지 않게 패쇄적으로 봉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뛰어 넘어야 한다는 것을 작품활동의 기본 틀로 삼았다. 플라스틱이나 다른 단단한 재료를 금속 링이나 리벳으로 연결하여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옷감으로 몸을 가려야만 한다는 기존의 개념을 넘어서 육체의 표현을 현재의 개념에 의해 드러나는 제한된 부분이 아닌 몸 전체가 연결된 고리 사이의 틈을 통해서 보이게 했다. 이러한 인체의 다양한 표현방법은 도덕과 미학의 객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작가의 주관적이고 독특한 창조의 세계를 추구해 왔던 작가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도 기존에 주로 사용되고 있었던 부드럽고 연속성의 특징을 가진 직물의 사용을 통해 미적 세계를 추구한다는 통념에서 금속, 플라스틱 등의 딱딱하고 거친 소재의 사용으로도 충분히 인체의 미를 추구할 수 있다는 미적 영역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다원주의 특성과 파코 라반의 작품에 나타난 다원주의적 특성을 상호 연관시켜 정리해 놓은 것이 <표 1>이다.

V. 결 론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요한 원류인 다원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각 주체 또는 개인의 개성과 자율 그리고 자유의 분해와 융합이다. 다원주의 사상에서는 우리가 취하는 행동과 결단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정이 아닌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다.

그리고 다원주의 특성을 중심으로 20세기 대표 패션디자이너인 파코 라반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다원주의가 파코 라반의 작품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분석을 근거로 다원주의가 현대 패션을 주도하는 중요한 문화적 원천임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다원주의의 이론을 응용한 현대 디자이너들의 작품 해석의 틀을 위한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미적 문화적 특성과 함께 다원주의의 성격과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는 제반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파코 라반의 활동

<표 1> 파코 라반 작품에 표현된 다원주의 특성

구 분	다원주의 특성	파코 라반 작품에 표현된 다원주의 특성
1. 상호 텍스트성	문화와 사회의 상호 영향이 문화 현상 창조의 원동력	타 예술 영역과의 상호 연관 패션의 대중화 추구
2. 절대 진리의 의미 해체	상반된 진리도 모두 진리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음	의복에 대한 고정 관념 해체 전통적인 의복 구성 방법 탈피
3. 역사적 발전 비존재	시간의 흐름과 역사의 발전은 일치하지 않음	역사적 흐름과는 무관한 작품 활동 일관성 있는 작품 세계 구축
4. 도덕과 미학의 객관적 가치 불인정	미와 추는 항상 공존 객관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음	혁신적 소재를 통한 미의 영역 확대 인체 표현 방법의 다양성

에 따른 패션의 외향과 미적인 변화가 어떠한 방법으로 전개되었으며 다원주의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그의 작품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분석했다. 다원주의 분석 틀을 위해서는 Bailey (1999)가 주장한 다원주의 특성이 사용되었다.

파코 라반의 작품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다원주의 특성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첫째, 상호 텍스트성이다. 파코 라반은 소재와 형태를 끝없이 변화시키거나 기존 소재의 사용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전통의 변화를 시도했는데 이러한 것은 전통과 현실의 끝없는 상호작용에 의해 문화와 역사가 발전한다는 상호 텍스트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흑인 마네킹을 도입하는 등 전통을 해체하면서도 미를 창조하는 활동을 전개했고 문화와 사회의 상호작용이 예술 활동이라는 생각에 근거하여 나름대로 사회적인 기능은 갖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의상의 소재라고는 인정받지 못했던 소재를 패션 창조에 응용할 수 있었던 능력은 다원주의 사고 틀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둘째, 절대 진리와 의미의 해체 원리로 파코 라반은 특정 소재만이 패션 재료라는 고정 관념에 도전하여 자신만의 작품영역을 개척하고 많은 응용작품이 계속 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의 복구성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과는 달리 실과 바늘 대신 리벳과 금속링 등을 사용했다. 따라서 파코 라반은 다원주의적 사고에서와 같이 사회 통념상으로 정해지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생각만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패션이라는 표현수단을 통해 보여준 것이다.

셋째, 역사의 발전에 관한 사상으로 엄밀히 말해 파코 라반은 시대를 앞서 간 것이 아니라 역사에 의해 부가되는 발전이나 진화라는 개념과는 상관없이 작품활동을 전개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왔던 전통적인 봉제방법과 바늘과 실의 사용을 혐오하는 등의 그의 작품활동이 이러한 그의 다원주의적 속성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넷째, 다원주의의 주요 사상인 객관적 미의 불인정 사상이다. 파코 라반 작품은 아름답고 추하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쉽게 이해될 수 없다. 왜냐하면 파코 라반은 객관적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상에 바탕을 두어 다른 작

가들이 사용하지 않는 소재 선택, 전혀 새로운 미적 개념 도입, 독특한 의복 구성 방법, 다양한 인체표현 방법 등이 그의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파코 라반은 자신이 의도하거나 의식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다원주의의 큰 틀 안에서 활동한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이론적인 논문은 많이 쓰여졌으나 실제로 포스트 모더니즘시대에 활동했던 작가에 대한 다원주의 사고 틀에 의한 분석은 없는 실정에서 이 논문이 그러한 연구들을 자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현재 활동중인 디자이너들에 대한 다원주의적 접근을 꾀한 논문의 출현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가재창 편저, 패션 디자이너 199, 2권, 정은도서, 1995, p.16.
- 세계의 패션디자이너, 1권, 라사라 패션정보, 2000, p.84-89.
- Bailey, G. W. S., *Postmodernism and pluralism in literature and the fine arts.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art.* East Carolina University. 1999. p.2-3.
- Behling, E. R., *The Relation of Fashion in Women's Dress to Selected Aspects of Social Change from 1850 to 1950.*, Doctoral Dissertation, Louisiana State University. 1962.
- Bogdan, R. C. & Biklen, S. K.,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1992. p.42.
- Calinescu, M., *Five Faces of Modernity*, Duke University Press. 1987.
- Callan, Georgina O'Hara, *Fashion and Fashion Designers*, Thames and Hudson. 1998. p.196.
- Derrida, J., *Dissemination*, Trans. Barbara Johnson. London: Athlone Press. 1981.
- Faurchou, G., *Fashion and the cultural logic of postmodernity.*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and Social Theory.* 11 (1). 1987. 68-84.
- Hassan, I., *The Postmodern turn: Essays in Postmodern Theory and Culture.*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87. p.85-86.
- Jameson, F.,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New Left Review.* 146, 1984. p.53-92.

- Kamitsis, L., *Paco Rabanne*, Thames and Hudson. 1999.
- Lipovetsky, G., *The Empire of Fashion: Dressing Modern Democra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88-128.
- Liotard, J. F.,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김옥동 편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0. p.272-279.
- Rabanne, P., *Journey From One Life to Another, Element*. 1997.
- Steven, C., *Postmodernist Culture: An Introduction to Theories of the Contemporary*,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s, London. 1995. p. 213-223.
- Wilson, E., “The New Components of the Spectacle : Fashion and Postmodernism” in Roy Boyne and Ali Rattansi (Eds.), *Postmodernism and Society*, Macmillan. 1990. p.209-236.
- Wilson, E., *Adorned in Dreams*. London: Vorago Press. 1985.
- <http://www.nytimes.com/library/magazine/millennium/m5/different-sante.htm>